



제주도 지역 성곽 유산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방향

변성훈

충북대학교 사학과

Corresponding Author : bsh0968@korea.kr

국문초록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동아시아 해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주변국의 외침을 빈번하게 받아왔다. 특히 쓰시마에 거점을 둔 왜구들이 중국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제주를 정복하기 위한 왜구의 침략이 고려 말 이후 계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 곳곳에는 외침에 대비한 방어시설들이 설치되었고, 특히 소수의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성곽이 곳곳에 축조되었다. 이는 내륙과 떨어져 있어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성곽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중심지였던 만큼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성곽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성곽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른 지역의 성곽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1970년대 들어서야 조사되기 시작했다. 이는 제주도 성곽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하지 못했고 성곽을 연구하는 전공자가 제주지역에 없었던 것이 원인일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고고학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성곽에 대한 연구도 점차 진전되었으나 아직도 그 수준은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주도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현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려시대 성곽 유적 2개소와 조선시대 성곽 유적 13개소의 성곽 유적 현황과 연구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성곽 유적의 보존·정비 현황에서는 잔존하는 성벽과 부속시설 현황을 제시하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곽 유적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여 향후 복원·정비에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주제어 제주도, 성곽 유적, 연구 현황, 보존·정비, 복원

투고일자 2018. 10. 26 ● 심사일자 2019. 01. 17 ● 게재확정일자 2019. 01. 31

I. 머리말

제주도는 북쪽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일본의 큐슈지방,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유구 열도로 둘러싸인 동중국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동아시아 해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된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주변세력의 침입을 빈번하게 받아왔다.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았고, 조선시대에는 왜구가 자주 침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서지역인 제주도는 내륙과 떨어져 있어 적의 침입 시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소수의 인원으로도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성곽을 쌓아 해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상대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제주도 곳곳에 성곽을 축조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지금 제주도에 남아 있는 성곽은 고려시대에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환해장성과 향파두리 토성이고 대부분은 조선시대 들어와 축조된 것이다. 특히 조선 세종대에 들어 중앙정부는 잦은 왜구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연해지역에 많은 읍성을 축성하도록 하였는데 제주도에 도 비슷한 시기에 많은 방어시설이 갖춰졌다.

성곽은 군사적 목적을 갖고 요지에 설치한 시설물이지만, 평시에는 해당 지역을 관장하는 행정적 기능도 갖고 있었기에 성곽을 통해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등 해당 지역의 역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성곽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져서 지방의 행정체제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정치·경제·문화·군사의 거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곽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조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한다. 다른 지역의 성곽에 대한 조사는 고고학 분야의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나¹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성곽 유적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는 1990년대부터 제주도의 방어 유적을 조사하면서² 이루어졌다. 다만 아직도 유적 정비와 건축공사를 위한 구제 발굴 등에 그쳐 학술 연구로서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고고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한 유적의 파괴나 변질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과 제주도의 성곽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다는 현실은 향후 성곽 유적의 보존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난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의 성곽 유적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 현황과 보존·정비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성곽 정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성곽 유적 정비 및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선배 동학들의 의견 제시와 비판이 있기를 바란다.

II. 제주도 지역 성곽 유산 연구 현황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 전국에 산재된 성곽 유적에 대한 소재지 및 규모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아마도 이 책의 간행을 위한 조사가 한국 성곽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조사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의 성곽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제주도 성곽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에 들어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 1973)를 간행

1 고용규, 1999, 「全南地域 城郭研究의 現況와 課題」 『호남고고학보』 제10집, 호남고고학회, p.33.

2 제주도에서 당시 잔존하는 제주의 관광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6년 『濟州의 防禦遺跡』의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후 성곽, 연대, 봉수대, 환해장성 등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졌다.

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후속 조사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 뒤 1986년부터 성곽 복원 사업이 실시되면서 고고학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주도 성곽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가 한다. 이처럼 성곽 유적에 대한 조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그 수준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 점차 성곽 유적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조금씩 조사가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본장에서는 제주도 지역에 분포하는 성곽 유적 현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1. 제주도의 성곽 유적 현황

제주도의 성곽 유적 분포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아 해안으로 들어오는 외적을 방어 하였던 환해장성과 여몽연합군에 항쟁하기 위해 삼별초에 의해 축성된 항파두리 토성이 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나오는 제주읍성 이전의 고성(古城)이 고려시대 성곽 유적으로 보이나,³ 이 고성에 대한 실체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⁴ 두 번째로 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군사적·행정적 목적으로 마련된 제주읍성과 정의현성, 대정현성이 있으며 요충지에 설치한 9개의 진성(鎭城)이 있다. 그리고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의 1목 2현의 행정체제로 개편된 후 정의현 설치 초기 축조되었던 고(古)정의현성도 제주도의 성곽 유적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는 축성 목적이 다른 성(城)이 존재하고 있다.⁵ 하지만 이 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성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성곽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고려시대 축조된 제주도 성곽 유적 현황

성곽명	축조 시기(년)	축조 책임자	규모
환해장성	1270(원종 11)	고여림(高汝霖)	300餘里
항파두리 토성	1271(원종 12)	김통정(金通精)	약 6km

〈표 1〉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성곽 유적에 대한 현황 자료이다.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 11) 11월 중순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할 때까지 제주도 해안 300여리에 급하게 쌓은 성곽이다.⁶ 이는 삼별초가 제주도를 점령한 시기가 같은 해 11월 중순인데 『高麗史』를 보면 같은 해 9월 환해장성을 축조한 고여림이 진도에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⁷ 환해장성의 축성기간은 채 2개월이 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⁸ 환해장성은 고려 조정이 삼별초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여림을 보내 삼별초가 탐라에 들어오는 것을 해안에서부터 방어하도록 축성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⁹ 이후 삼별초

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全羅道, 濟州牧, 古跡條: 古城 州城西北有城遺址.

4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주의 성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제주읍성이 존재하고 있던 古城을 바탕으로 확장했다는 의견과 제주읍성이 축조된 이후 훼손된 古城을 다시 쌓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古城이 존재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시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판단에는 이견이 없다. 그 이유로는 『增補耽羅誌』에도 “古州城은 州城 西北에 古城基址가 有하니 洞名을 陳城이라 稱한다”라는 기록을 참고해보면 ‘무근성’이 있던 곳을 ‘陳城洞’이라고 표기한 것은 ‘陳’의 뜻이 ‘목은 또는 오래된’이므로 ‘陳城’은 목은 성 또는 오래된 성, 즉 古城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 제주읍성 축성 이전 이미 오래된 성인 목은 성이 있었고, 이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고에서는 古城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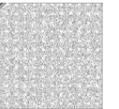
5 제주도에는 조선시대 목축생활과 관련된 잣성(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유적과 4·3사건 당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성한 성곽 유적이 일부 남아 있다.

6 김보한, 2016, 『제주도 環海長城과 규슈 元寇防壁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5, 한일관계사학회, p.49.

7 『高麗史』 世家 卷第二十六 元宗 11年 9月 辛丑: 辛丑將軍楊東茂高汝霖等以舟師討珍島賊(後略).

8 강창연, 1991, 『濟州島의 環海長城 研究』 『耽羅文化』 1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110.

9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全羅道, 濟州牧, 古跡條: 古長城, 沿海環築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三別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霖等于耽羅領兵一千以備之因築長城.



군이 탐라를 점령하고 여몽연합군에 대응하면서 수차례 성곽을 정비하였고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제주도 해안을 방어하는 시설로 사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환해장성 유적은 현재 제주도 곳곳에 그 유적이 잔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항파두리 토성은 1271년(원종 12) 5월 진도에서 삼별초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 온 김통정 장군이 귀일촌에 쌓은 토성이다. 삼별초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여몽연합군에 맞서 항쟁하다가 결국 2년 후인 1273년(원종 14) 1만여명의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다.¹⁰ 항파두리 토성은 제주도의 성곽 유적 중 유일하게 성벽을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길이는 약 6km이며 외성(外城)과 내성(內城)을 갖춘 이중성이다. 성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올라온 지역에 위치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파른 입지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쌓았다. 성곽의 형태는 불규칙한 장타원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성벽과 인접한 하천을 자연 해자로 삼았다. 현재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고고학 조사와 보존·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제주도의 조선시대 성곽 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성곽 유적 현황으로, 성곽의 규모는 『濟州邑誌』의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집권화의 일환으로 방어체계가 강화되면서 성곽 축조 및 증·개축 등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특히 세종대에 이르러 하삼도(下三道)의 연해읍성 축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시설을 확충하고 성내(城內) 주민들의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¹¹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에 따라 제주도에도

표 2 조선시대 성곽 유적 현황

성곽명	축조 시기(년)	축조 책임자	규모
제주읍성	1411(태종 11) 수축	-	周 5,489尺 高 11尺
古정의현성	1416(태종 16) 이후	-	-
정의현성	1423(세종 5)	판관 최치렴	周 2,986尺, 高 13尺
대정현성	1418(태종 18)	현감 유신	周 4,090尺, 高 17尺 4寸
화북진성	1678(숙종 4)	목사 최관	周 606尺, 高 12尺
조천진성	1590(선조 23) 개축	목사 이옥	周 428尺, 高 7尺
별방진성	1510(중종 5)	목사 장림	周 2,890尺
수산진성	1599(선조 32) 이축	목사 성윤문	周 1,164尺, 高 16尺
서귀진성	1590(선조 23) 이축	목사 이옥	周 825尺, 高 12尺
모슬진성	1678(숙종 4)	목사 윤창형	周 315尺, 高 12尺
차귀진성	1652(효종 3) 개축	목사 이원진	周 2,466尺, 高 22尺
명월진성	1510(중종 5)	목사 장림	周 3,020尺, 高 8尺
애월진성	1581(선조 14) 개축	목사 김태정	周 549尺

비슷한 시기에 성곽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1678년(숙종 4)에 3개의 읍성과 9개의 진성 체제의 방어체계가 마련되었다.

당시 제주도에 마련되었던 성곽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耽羅巡歷圖』를 통해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림 1〉은 1702년(숙종 28) 4월 15일 당시 제주목사 이형상에 의해 제작된 『耽羅巡歷圖』 중 ‘한라장축’으로, 당시 제주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실이 잘 반영된 지도이다. 지도에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당시 3읍 관아

10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도서출판 각, p.80.

11 변성훈, 2015,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그림 1 탐라순력도 중 한리장축(漢羅壯圖).

의 위치와 9개소의 진성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놓았다. 그리고 중산간 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과 그 경계를 표시했었던 돌담, 즉 갖성의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위 지도를 살펴보면 진성이 설치된 곳은 3읍 중간 중간 요충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읍 사이에 방어상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진성을 축조하여 혹시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9개 진성의 성곽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유적이 일부 남아 있으나, 차귀진성과 모슬진성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2. 연구 현황

앞서 살펴본 제주도의 성곽 유적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제주도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적에 대한 연구 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고려시대 유적인 항파두리 토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곽 유적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고고학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성곽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부재와 성곽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제주도의 성곽 유적 연구 현황은 특정 유적에 치우치게 되었고 나머지 유적에 대한 연구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고고학적 연구와 학술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 성과를 살펴 보겠다.

우선 고려시대 성곽 유적인 항파두리 토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고학조사가 있어왔다. 1993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추정 남문지 긴급조사를 시작으로 토성 단면 확인조사, 발굴조사, 토성 지표조사, 토성 내부에 대한 2차 지표조사, 토성 내 시굴조사, 내성 건물지 발굴조사 등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내성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 고고학조사 여건상 개별 유적에 대한 조사 성과로서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곳이 항파두리 토성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현황과 성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3〉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조사 현황과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조사 내용 및 결과는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요점만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일부 누락된 조사 현황을 감안해도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조사는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93년도에 긴급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항파두리 토성 전반에 대한 고고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 결과 토성의 규모 및 토성 내 존재했던 건물지와 배치 현황, 토성 내 여러 부속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삼별초 당시의 성 내 생활 모습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전 시 상황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당시 병사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누놀이판'의 출토가 이채롭다. 또한 삼별초 관련 유적인 강화도의 성곽 유적인 '강화중성'과 진도의 '용장성'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에도 이상의 고고학조사 결과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은 고려시대 성곽 유적에 대한 학술 연구 현황이다. 연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즉 토성의 축성 방법, 규모, 부속 시설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그 대부분이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성상 삼별초와 관련된 연구이며 그



표 3 항파두리 토성 조사 현황

조사 연도	조사 방법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사 기관
1993	긴급조사	도로 개설 중 추정 남문지 및 용천수 정비 목적	청지편 및 다량 기와 출토, 토성 판축 부분 확인 용천수를 저장했던 목조의 수조 시설 확인 ¹²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토성 잔존 현황, 보조성터, 내성지의 건물지, 음용수 유적터, 기와 가마터, 망대와 진지 등 확인	
2002	지표조사	학술조사 및 유물 분포 확인	토성 내부 유물 산포지 확인, 청자, 원대 도자기, 분청사기, 백자 등 출토 ¹³	(재)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확인조사	토성 정비 확인조사	토성 판축 단면과 기와 매물층 확인, 토성 축조는 3차례 판축한 것으로 확인 ¹⁴	
2009	시굴조사	토성 정비	토성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토성 판축 단면 확인, 기와류 출토, 토성은 크게 3차례 판축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 ¹⁵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성 내 시굴조사 실시, 조사 결과 다수의 건물지 및 망루, 수혈유구 등 확인됨. 또한 청자, 철축, 동전, 청동장병, 청동시저, 청동잔 등 다량 유물 출토됨 ¹⁶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시굴조사	토성 정비	토성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토성 기저부 기반 석렬 확인, 기와류 출토, 여러 차례 판축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 ¹⁷	
2011	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2010년 시굴조사 결과 외 특징적인 부분은 고누놀이판 등 다량 유물 출토 ¹⁸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 2016	발굴조사	2011년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연차적인 발굴조사 실시	내성지 내 건물지를 비롯하여 아궁이, 보도지, 담장지 등 여러 부속시설 확인 석축시설 및 배수구가 확인되고 철갑, 철모, 청동시저, 자기류와 와전류 출토 ¹⁹	

중에서도 대몽항쟁과 관련된 것이 중심이었다.²⁰ 그리고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화도와 진도에서 펼쳤던 여몽연합군에 대한 항쟁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²¹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삼별초가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내려와 항파두리 토성을 축조하고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였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성과를

안겨주었다고 본다. 또한 고고학적 연구 현황과 학술 연구 현황을 통해 항파두리 토성의 축성과 내성의 성격, 건물지 배치 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한편 같은 고려시대 성곽 유적인 환해장성에 대한

12 제주사(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앞의 책, p.53.

1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2002,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14 (재)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제주 항몽유적지 항파두리 토성 보수 정비에 따른 토성 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15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 복원구간 발(시)굴조사 간략보고서』.

16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17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항파두리 토성 단면조사 간략보고서』.

18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사적 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19 김일우·이정란, 2002,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시연구』 11, 제주도시연구회; 배종원, 2003, 『삼별초와 민의 대몽항쟁과 그 성격』,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김윤근, 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김호준, 2012, 『高麗 對蒙抗爭期의 築城과 入保』,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 고창석, 1984, 『여, 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신인식, 2002, 『고려 원종 11년(1270) 삼별초 항쟁의 배경』, 『명지사론』 13, 명지사학회; 박종일, 2008, 『삼별초의 진도 입도 배경과 저항활동』,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1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7, 『제주 항파두리성 內城 I /본문』, 디자인이야기.

연구 현황은 부진한 편이다. 우선 현재까지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고고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주로 문헌 기록 등에 의지해 환해장성의 축성 배경과 시기, 규모, 분포와 형태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²² 그리고 제주도의 환해장성과 유사한 성곽을 비교하며 해안 성곽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가 있다.²³ 이러한 연구들은 그나마 환해장성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환해장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그 연구 성과는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환해장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및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발간한 보고서가 있다.²⁴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환해장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보존·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향후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제주도의 조선시대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은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부진하다. 특히 체계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성벽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성곽 평면도를 작성하고 축조 방법, 축조 시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많은 성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곽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시대의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 4>는

제주도의 성곽 유적 중 조선시대에 축조된 13개소의 성곽에 대한 고고학조사와 학술조사 현황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표 4>에는 개별 성곽마다 이루어졌던 연구 방법과 시기, 조사기관 등 개략적인 연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²⁵ 일부 성곽은 조선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거나 기록에 나타나는 시기는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동 시기가 이들 성곽들이 방어시설로 두각을 나타낸 시점이기 때문이다. 13개소의 성곽은 읍성이 4개소, 진성이 9개소이며 모두 석성(石城)이다. 그리고 제주 읍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평지성이다. 그런데 기록에는 나타나지만 현재는 멸실되어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모습진성과 차귀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단지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성곽과 관련한 연구사를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주도의 관방시설 전체에 대한 문헌 기록을 정리하고 성곽의 규모, 부속시설 현황, 축성 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살핀 것이 있다.²⁶ 이 연구는 제주도의 성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인 까닭에 항상 인용되고 있어 연구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²⁷

두 번째로는 제주도 읍성의 축조 시기, 규모, 축조 배경, 중·개축 시기, 부속시설 등을 다룬 연구가 있다.²⁸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고학적 검증보다는 주로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 중심으로 제주도의 읍성에 한하여 연구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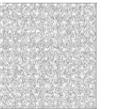


표 4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 연구 현황²⁹

성곽명	연구 방법(시기)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사 기관
제주읍성	정비계획 작성(1990)	현황 지표조사 및 분석, 트렌치 시굴조사 결과 잔존 성곽 중앙부에 건물지 확인	
제주읍성	복원계획(1999)	제주읍성 남문 복원계획을 위한 학술 연구 결과 음성, 성곽 일부, 문루 복원 제시 ³⁰	(주)금성건축사사무소
	학술조사(2013)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 실시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표본조사(2013)	남문 서쪽 치성 추정 위치에 대한 트렌치 조사 결과 내부 성곽 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2013)	동치성 상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여장시설, 기단 석렬, 초석 등 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입회조사(2013)	성곽 외벽 기단부로 추정되는 석렬 확인 ³¹	제주고고학연구소
고정의현성	지표조사(2004)	옛 정의현성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지표조사 실시. 조사 결과 잔존 상태가 양호한 성벽 일부 확인되었으며 백자편과 도기류, 기와류 확인·수습 ³²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시굴조사(2016)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구제 발굴조사 실시. 토층 및 트렌치 조사를 통해 체성의 축조 방법 및 규모 확인 ³³	(재)경상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2017)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 등성시설 추정 석렬 확인. 조사 결과 체성은 협축하여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³⁴	
	학술조사 및 지표조사(2017)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학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성곽 조사를 실시하여 성곽 형태 등을 조사함. 조사 결과 여장 추정 시설 일부 확인, 도기 및 자기편 등의 유물 수습 ³⁵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정의현성	발굴조사(1987)	제주 성읍민속마을 성문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조사 결과 동·서·남문지 및 음성 배치 형태 확인. 문지 평면 형태 비교 분석. 석렬, 초석, 그릇, 기와류 등 출토 ³⁶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정의현성 성곽 여장 복원 연구(2010)	성곽 구간별 기초 현황조사 잔존, 수리, 유실 구간 확인 및 복원 방향 연구 제시 ³⁷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대정현성	발굴조사(2001)	대정성지 복원의 해체 발굴조사와 함께 성곽 보수 기록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짐 ³⁸	
	학술조사(2006)	대정읍성 학술조사 과정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 및 성벽 시설물 확인. 특히 건물지 및 해자 추정 시설이 확인됨 ³⁹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정비계획(2012)	성곽 보존정비·관리운영·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⁴⁰	다나건축사사무소

29 조선시대 성곽 유적 연구 현황은 지금까지 필자가 파악한 성곽에 대한 고고학조사, 학술조사 등을 개별 성곽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표에서 정리한 조사 내용 및 조사 결과 외에 많은 조사 내용과 성과가 있으나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0 제주시, 1999, 『제주읍성 남문 복원 조성계획』,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31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 외 3필지 입회조사 보고서』.

32 남제주군·(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보고서 古旌義縣城』,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33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재)경상문화재연구원.

34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재)경상문화재연구원.

35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고고학연구소, 『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디자인이야기.

36 남제주군, 1987, 『濟州城邑民俗마을 城門址 및 雉城發掘調査報告書』,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37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2010, 『정의현성 성곽 여장 복원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38 남제주군, 2001, 『대정성지 복원 조사 보고서』.

39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대정읍성 학술조사보고서』.

40 서귀포시, 2012, 『대정성 종합정비계획(안)』, 대한문화사.

22 강창연, 1991, 앞의 논문.

23 김보한, 2016, 앞의 논문; 김보한, 2017,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해안 성곽의 성격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관계사학회.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도서출판 각; 제주특별자치도·(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일신출판사.

25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 주체 간 자료 공유에 한계가 있으며 유적별·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 연구 현황이 누락될 수 있다.

26 김봉욱·신석하, 1996, 『濟州의 防禦遺蹟』, 제주도; 김명철, 2000,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기록에 나타난 축조 시기에 대한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인명을 표기할 때 한자의 오류, 고고학적 검증 없이 위치 및 규모를 비정하는 경우 등이다.

28 오수정, 1997, 『19세기의 제주읍성』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변성훈, 2018, 『濟州 旌義縣城의 構造와 變遷 研究』 『백산학보』 110, 백산학회; 변성훈, 2018, 『濟州 大靜縣城의 築城과 構造』 『문화사학』 49, 한국문화사학회.



성곽명	연구 방법(시기)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사 기관
화북진성	지표조사(1988)	화북진성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주초석 11점, 기와편, 분청사기, 백자, 청화 백자 등의 유물 확인 ⁴¹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학술조사(2011)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조사 실시.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⁴²	(재)제주문화예술회관
조천진성	학술조사(2012)	성곽 보존·정비·관리·운영·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⁴³	(재)제주고고학연구소
	발굴조사(2017)	성곽 초축 시기 및 사용 시기 추론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건물지 및 계단, 배수로 등의 부속 시설, 기와류, 자기류 출토. 출토된 기와 등을 통해 축조 시기를 어말선초로 판단함 ⁴⁴	
별방진성	학술조사(2014)	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 실시.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활용 계획 마련 ⁴⁵	(주)별방건축사사무소
수산진성	시굴조사(2009)	성벽 입면 및 기반석 하부 조사 실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서귀진성	발굴조사(2009)	추정 성벽지, 건물지, 암거시설, 집수정 석렬 등 확인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표본조사(2012)	성곽 경계 부분과 성벽의 일단을 확인하고 향후 서귀진성의 보존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립 하기 위해 실시. 조사 결과 성곽과 관련된 시설은 출토되지 않음 ⁴⁶	
모슬진성	-	멸실	-
차귀진성	-	멸실	-
명월진성	지표조사(1993)	명월진성 정비 목적으로 응성 및 처성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짐 ⁴⁷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남문지 발굴조사(2000)	명월성 남문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조사 결과 초석 4기, 지대석, 적석 등이 출토되어 남 문지 확인. 어골무늬 기와편 일부 출토 ⁴⁸	
	학술조사(2015)	명월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실시. 향후 발굴조사 및 성곽, 성곽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활용 계획 마련 ⁴⁹	
애월진성	-	-	-

어졌다. 세 번째로는 조선시대 읍성 중 특히 도서지역에 위치한 읍성을 살펴보면 제주도에 축조된 읍성들의 규모 및 축성 방법, 성곽 부속시설물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⁰ 이 연구는 제주도의 읍성을 다룬 도서지역 읍성과 함께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

인데, 다소 아쉬운 점은 지역별로 축성 방법 등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보다는 기록과 선행 연구에 나타난 내용을 비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고고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성곽의 변천 과정과 부속시설, 관아시설 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¹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도 곳곳을 순회한 모습을 기록한 화첩인 『耽羅巡歷圖』를 통해 제주도의 성곽 유적의 건축 특성과 읍성의 규모, 성문 위치와 건물 공간 구조를 고찰한 연구가 있으며,⁵² 성곽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지리적 환경 고찰을 통한 성곽 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성곽 입지, 형태, 구조, 시설 배치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⁵³

이 외에도 제주도의 성곽에 대한 다양한 연구⁵⁴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도의 성곽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개별 성곽에 대한 고고학적·학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체계적으로 성곽을 전공한 연구자가 없는 상황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또한 성곽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문제 인식과 제언은 뒤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Ⅲ. 성곽 유산 보존·정비 현황과 과제

최근 제주도 지역은 성곽을 정비하거나 복원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도 볼 수 있다. 다만 성곽 보존을 위한 복원·정비 과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원형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제주도의 성곽 유적에 대한 정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향후 보존·정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1. 성곽 유적의 보존·정비 현황

제주도 성곽 유적의 보존을 위한 정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성곽 유적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 유적에 한해 보존·정비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성곽 유적의 보존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성곽들에 한해 보존·정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성곽 유적들은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개발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제주도 성곽 유적의 정비 현황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고려시대 축조된 향파두리 토성의 경우 1993년 긴급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고고학조사와 학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보존·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토성은 70% 이상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발굴조사 등 고고학조사도 장

41 이청규·강창언, 1988, 「화북성지 지표조사 보고」, 『화북포구지표조사보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2 제주시, 2011,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 (재)제주문화예술회관.

43 제주시, 2012, 「조천진 및 연복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재)제주고고학연구소.

44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8, 「제주 조천진성 2차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45 제주시, 2014, 「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별방건축사사무소.

46 서귀포시, 2012, 「서귀진지 표본조사 및 복원정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47 북제주군, 1993, 「명월성 지표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48 북제주군, 2000, 「명월성 남문지 유구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5, 「명월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50 강두용, 2008,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 강창화, 2014,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변성훈, 2015, 「제주 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 신석하, 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관아건축양식고찰」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 윤일이, 2007,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통권 제228호, 대한건축학회; 윤일이, 2008,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통권 제42호, 대한건축학회.

53 김동섭, 2009,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의 解析」,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정광중, 2011, 「제주도 대정읍성(大靜邑城)의 지리적 환경 고찰」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사지리지학회.

54 김은석, 2006, 「정의읍성의 공간구성」 『한국사지리지학회지』 제16권, 한국사지리지학회; 양상호, 2011,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제20권 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⁵⁵ 향후 내성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성 내 건물지 등에 대한 복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시기 성곽 유적인 환해장성의 경우에는 보존을 위한 정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고학조사는 물론 제대로 된 성곽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환해장성들은 인위적 요인에 의해 그 원형이 멸실된 곳도 있다. 이는 환해장성 전체에 대해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별로 위치한 10개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한 까닭에 지정되지 않은 곳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언급했지만 환해장성은 고려시대에 처음 축조되었으나 조선시대까지 수차례 개보수를 하며 해안을 방어하였던 성곽으로, 제주도 해안 전체를 둘러쌌던 성곽인데 성벽이 남아 있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남아 있는 성벽을 포함하여 고고학조사 및 문헌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정된 환해장성 역시 성벽 복원 등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복원 과정에서 성벽 축조 재료 및 축성 방법 등이 환해장성의 원형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지 못하자 복원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다음은 읍성 및 9개소의 진성 유적에 대한 보존·정비 현황이다. 제주에 축조된 읍성과 진성은 모두 현무암질의 돌로 쌓았다. 현무암질의 돌은 제주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원거리에 별도의 채석장을 지정하여 재료를 공급하기보다는 인근에서 쉽게 채집 가능했다. 그런 까닭에 채석과 운반에 들어가는 공력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집중 호우 시 성벽 붕괴 등의 피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잔존하는 성벽을

살펴보면 현무암질의 석재를 다듬어 쌓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 보존·정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는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에 대한 보존·정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이다. 표를 통해 성벽 복원 현황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벽 잔존 구간이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곽 부대시설인 치(雉), 성문(城門), 옹성(甕城) 등을 설치하여 성벽의 취약점을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잔존 구간이 남아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고학조사를 통한 보존·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2. 복원 및 정비 방향

성곽 유적 정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유적이 활용되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정비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 시점을 정해야 한다. 가령 제주읍성의 예를 들어보면 중·개축 시점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바탕으로 성곽 규모를 검토하고 고고학조사를 통해 성벽의 위치를 확인하여 정비해야 한다. 즉 1차적인 정비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적으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고고학조사 범위를 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성곽에 대한 종합정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곽의 정비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정비 계획과 고고학조사 없이 바로 성곽을 복원하다가 중단되는 일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환해장성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환해장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성곽 위치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우선 다음 제시하는 사진과 그림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55 앞서 항파두리 토성의 규모를 검토하며 토성 길이를 약 6km로 제시하였다. 이는 문헌의 기록을 현재 수치로 환산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2012년 제주시에서 토성의 길이를 실측한 결과 약 3.8km로 측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3km 토성 복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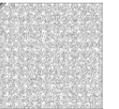


표 5 조선시대의 제주도 성곽 유적 보존·정비 현황

성곽명	성곽 보존 상태	복원·정비 이력	정비계획 수립
제주읍성	성벽 복원 약 230m 雉 3개소	東雉城 개축, 제이각 복원 城內 군사시설 운주당터 발굴조사	2013년 수립
고정의현성	잔존 성벽 약 880m ⁵⁶	-	2017년 수립
정의현성	성벽 복원 완료 雉 8개소 복원 성문 2개소, 甕城 3개소	성곽 복원 정비, 성문 복원 붕괴 및 배부를 구간 보수 성벽 단절 구간 복원	2010년 수립
대정현성	성벽 복원 752m 雉 4개소, 甕城 1개소	성벽 복원(1986~2000) 雉 4개소 복원 정비, 옹성 1개소 복원	2012년 수립
화북진성	성벽 잔존 구간 187m 성벽 잔존 높이 최고 4.3m, 최저 1.5m	1970년대 도로 확장에 의해 일부 성곽 개축(서남측 성벽은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안쪽으로 밀려 쌓임)	2011년 수립
조천진성	잔존 성벽 약 128m 높이 최고 4.3m, 최저 2.2m 진성 내 연북정	성 내 발굴조사 실시 유실 성벽 해체 복원(2016~2017) 연북정 보수(2015) ⁵⁷	2012년 수립
별방진성	성벽 복원 650m 잔존 구간 약 220m 雉 복원 3개소 성벽 약 138m 멸실	성벽 복원(1994~2006) 雉 복원 3개소, 성내 샘물 복원 토지 매입 및 건물 철거 등성 계단 복원	2014년 수립
수산진성	잔존 성벽 약 585m 雉 3개소 및 甕城 1개소 잔존	수산진성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미수립
서귀진성	성벽 일부 잔존(북쪽, 서쪽)	표본조사 및 발굴조사 우물터 및 수로 정비 정낭 및 정주석 설치, 돌담 설치 진성 내 건물지 유구 보존, 석축 및 울타리 돌담 정비	미수립
모슬진성	멸실	멸실	미수립
차귀진성	멸실	멸실	미수립
명월진성	남문 주변 성벽 약 260m 복원 남문 및 甕城 1개소 雉 1개소 복원 성벽 잔존 구간 약 760m 성벽 약 330m 멸실	성벽 복원(1997~2008) 정비 남문 및 문루 복원(2003) ⁵⁸ 등성 계단 2개소 복원 甕城 및雉 각 1개소 복원 2008년 이후 성벽 정비 중단	2015년 수립
애월진성	잔존 성벽 약 162m 女塼, 적대 1개소 미석, 총안 잔존	애월진성은 초등학교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성벽에는 女塼이 시설되어 있으며, 성문지에는 적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미수립

56 제주특별자치도, 2017, 『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재)제주고고학연구소.

5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17,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8호 도지정문화재 조천진성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58 명월진성의 남문 및 문루는 2003년 처음 복원되었으나 성문 기둥 부재의 부식으로 인하여 2회의 개축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루의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 속이 부식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동일 현상으로 2회 이상 개축을 하게 된 유일한 사례이다.



사진 1 성곽 정비 계획(변경 전).



사진 2 성곽 정비 계획(변경 후).⁵⁹

〈사진 1〉은 사전에 고고학조사를 하지 않고 환해장성을 복원하기 위해 계획된 현장 사진이다. 당초 계획에는〈사진 1〉의 붉은 실선으로 표시한 기존 석축을 해체하고 줄눈을 맞추며 성곽을 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진 2〉를 보면 환해장성의 지대석들이 기존 석축 전면에서 발굴되었다. 이런 이유로 성곽 복원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제시된〈그림 2〉과〈그림 3〉을 통해 성곽 진행 방향이 변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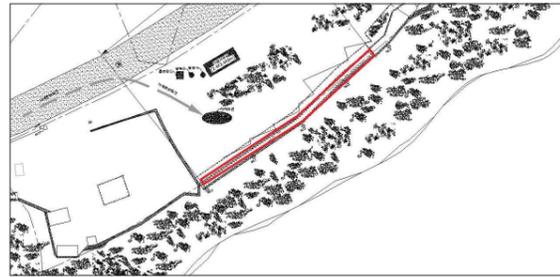


그림 2 성곽 정비 계획(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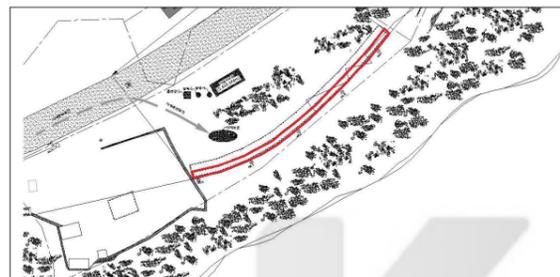


그림 3 성곽 정비 계획(변경 후).⁶⁰

이러한 문제는 고고학조사 과정 없이 복원에 급급하여 바로 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성곽에 대한 평면도를 작성하고 축성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획득한 내용과 문헌의 기록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성곽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원형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성곽 복원 시 사용하는 성돌과 축성 방법에 대한 문제다. 성곽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복원되고 있는 성곽들은 기존 성곽과 매우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복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 쌓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음의 사진을 통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59 사진은 2008년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축성되었던 한동 환해장성 복원 사업 시 직접 필자가 촬영한 사진이다. 성벽을 복원하고 훼손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위치 변경으로 인해 복원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고고학조사가 마무리된 후 잔여 구간에 대한 보존·정비가 이루어졌다.

60 〈그림 2, 3〉는 2008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위치한 한동 환해장성 복원 사업 시 제작된 설계도면으로 당시 복원 사업을 시행한 문화재 보수 전문기관에서 확보한 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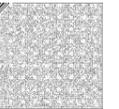


사진 3 별방진 기존 성곽(서측).



사진 4 별방진 복원 성곽(동측).

〈사진 3〉은 별방진성 서측 잔존 성곽이며 〈사진 4〉는 복원된 동측 성곽이다. 사진에 나오는 성곽은 동일한 별방진성임에도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 이유는 기존 구간의 성벽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성돌의 거친 면만 다듬은 후 협축 형태로 불규칙하게 쌓았는데 복원한 구간의 성벽은 인위적으로 깎은 돌을 재료로 하여 정형화되게 쌓았다. 그런 이유로 동일한 성곽임에도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석성(石城)은 성곽 축성 시 별도의 채석장을 두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재를 다듬어 성돌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협축 형태로 축조하였다. 그리고 복원 과정에서 성벽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쌓아 올려 잘못된 복원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역시 진성 정비 복원도 대부분 중단되었고 태풍이나 폭풍에 의

해 훼손된 성벽을 일부 보수하는 선에서만 현재 보존·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축조된 성곽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산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읍성 또는 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상 해안으로 침입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 입지를 해안 또는 해안과 인접한 평탄한 대지로 잡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성곽이 위치했던 입지는 교통의 편리성과 인구 이동이 용이한 관계로 도시화로 접어들기 위한 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곽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독자적인 문화가 파괴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나아가 성곽은 성문을 비롯한 성 내외의 다양한 부속시설과 건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종합적인 시설물로 폭 넓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史料

- 『高麗史』
- 『南槎錄』
- 『世宗實錄』 「地理志」
- 『新增東國輿地勝覽』
- 『濟州大靜旌義邑誌』
- 『濟州邑誌』
- 『增補文獻備考』
- 『增補耽羅志』
- 『增補耽羅志』 尹蒼東 編
- 『耽羅紀年』
- 『耽羅志』
- 『耽羅志草本』
- 『太宗實錄』

보고서

- 경성문화재연구원, 2016,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경성문화재연구원
- 경성문화재연구원, 2017,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경성문화재연구원
- 남제주군, 1987, 「濟州 城邑民俗마을 城門址 및 雉城發掘調査報告書,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남제주군, 2001, 「대정성지 복원 조사 보고서」
-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4,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보고서 古旌義縣城,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북제주군, 1993, 「명월성 지표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북제주군, 2000, 「명월성 남문지 유구조사 보고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토성복원구간 발(시)굴조사 간략보고서」
- 서귀포시, 2012, 「서귀포시 표본조사 및 복원정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이청규·강창언, 1988, 「화북성지 지표조사 보고」 『화북포구지표조사보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향파두리 토성 단면조사 간략보고서」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 외 3필지 입회조사 보고서」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8, 「제주 조천진성 2차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3, 「제주향몽유적지 향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대정읍성 학술조사보고서」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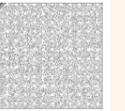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 제주시, 2011, 「도지정기념물 화북진성 복원계획 및 주변 문화유산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시, 2012, 「조천진 및 연복정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17,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8호 도지정문화재 조천진성 보수정비공사 수리보고서」

단행본 및 저서

- 김봉욱·신석하, 1996, 『濟州의 防禦遺蹟』, 제주도
- 문화재관리국, 1985, 『전국 읍성 조사』
- 서귀포시, 2012, 『대정성 종합정비계획(안)』, 대한문화사
- 손영식, 2011, 『한국의 성곽』, 주류성
- 제주고고학연구소, 2017, 『제주 향파두리성 內城 I /본문』, 디자인이야기
- 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2,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2010, 『정의현성 성곽 여장복원연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1999, 『제주읍성 남문 복원 조성계획』,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제주시, 2014, 『별방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별터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 2012,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2017, 『고성리 고정의현성 복원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제주고고학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5, 『명월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서귀포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 계획』, 일신옵셋인쇄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도서출판 각
-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3, 『성곽 조사방법론』, 사회평론아카데미

연구논문

- 강두용, 2008,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창언, 1991, 「濟州島의 環海長城 研究」 『耽羅文化』 1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강창화, 2014,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고용규, 1999, 「全南地域 城郭研究의 現況와 課題」 『호남고고학보』 제10집, 호남고고학회
- 고창석, 1984, 「여, 원과 탐라와의 관계」 『논문집』 17, 제주대학교
- 김동섭, 2009,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명철, 2000,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한, 2016, 「제주도 '環海長城'과 규슈 '元寇防壘'의 역사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5, 한일관계사학회



참고문헌

- 김보한, 2017, 「몽골의 고려 침공과 해안성곽의 성격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8, 한일관계사학회
- 김윤근, 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의 정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 김은석, 2006, 「정의읍성의 공간구성」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6권, 한국사진지리학회
- 김일우·이정란, 2002, 「삼별초 대몽항쟁의 주도층과 그 의미」 『제주도사연구』 11, 제주도사연구회
- 김호준, 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入保」,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 박종일, 2008, 「삼별초의 진도 입도배경과 저항활동」,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배중원, 2003, 「삼별초와 민의 대몽항쟁과 그 성격」,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변성훈, 2015,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성훈, 2018, 「濟州 旌義縣城의 構造와 變遷 研究」 『백산학보』 110, 백산학회
- 변성훈, 2018, 「濟州 大靜縣城의 築城과 構造」 『문화사학』 49, 한국문화사학회
- 신안식, 2002, 「고려 원종 11년(1270) 삼별초 항쟁의 배경」 『명지사론』 13, 명지사학회
- 신석하, 2000,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관아건축양식고찰」 『耽羅巡歷圖研究論叢』, 제주시
- 양상호, 2011,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제20권 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 오수정, 1997, 「19세기의 제주읍성」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 윤일이, 2007,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9진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計劃系』 통권 제228호, 대한건축학회
- 윤일이, 2008,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計劃系』 통권 제42호, 대한건축학회
- 정광중, 2011, 「제주도 대정읍성(大靜邑城)의 지리적 환경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The Status of Studies on Historical Wall Relics in the Jeju Area and the Strategic Direction for Their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Byun, Seong-hun

Department of History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bsh0968@korea.kr

Abstract

Jeju Island is located at a strategic position, making it an important waypoint on the sea routes of East Asia. As a result, the island suffered many foreign invasions throughout history. Especially, it is widely known that Japanese pirates frequently invaded the island as the island was located on their way as they were sailing to China.

Therefore, they built various defensive structures across the island. Fortresses, where a small number of defenders may fend off an enemy, were built in multiple places on the island. This was a strategy for the island to defend itself, as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prompt support in an emergency from the mainland due to the long distance.

Fortresses, or walled cities, were the center of politics, culture, and economy of many areas. Therefore, they are a valuable resource to study the history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 place. For this reason, studies on fortresses started quite early on. However, studies on such relics in Jeju Island began very late. The research on fortresses was launch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for most mainland areas. However, studies on the relics on Jeju Island began as late as the 1970s. This was because scholars did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city walls and fortresses on Jeju Island, and there were no researchers who specialized in city walls or fortresses on the island, as well. As archeological research on Jeju Island began to gain momentum, the studies on city walls and fortresses saw progress; however, these studies are still of an elementary level.

In this study, the author summarized the status of studies on the city walls and fortress relics in Jeju Island and their preservation/maintenance status by era.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 were two Korean-era city wall/fortress relics and thirteen from the Chosun era., The researcher analyzed and presented the status of studie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relics. The status of attached structures was also documented. Furthermore, a short review of the maintenance work performed so far was provided. Also, the researcher mentioned the problems that accompanied the maintenance process of these relics, along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at could be referred to in future restoration/maintenance projects.

Keyword Jeju Island, City walls/fortresses, study status, preservation/maintenance, restoration

Received 2018. 10. 26 • **Revised** 2019. 01. 17 • **Accepted** 2019. 01. 31